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성탄에 복 받는 가정(누가복음 2:1-14)

“성탄가치와 의미 되새기는 기회 되길”

교황성탄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성탄절을 맞는 인류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은 16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수요일 밤 11시 30분경의 훈화에서 “올해 성탄절은 (바이러스에 따른) 제한 조치와 불편함이 있을 것” 이라면서도 오히려 이를 통해 성탄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황은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경험한 성탄절을 언급하며 “그들 역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뇌가 있었겠느냐. 하지만 신념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지했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그와 같았으면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소비지상주의가 사라지고, 성탄절을 보내고 기리는 방식이 더 순수해지길, 더 신실하고 진정한 성탄절이 되길 희망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성탄절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밤 1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는 등 방역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황이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에서 집례하는 24일 성탄 전야 미사도 오후 7시 30분으로 예년보다 2시간 당겨졌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가 24일부터 2주간 전 국민의 외출·이동을 금지하는 고강도 추가 방역책을 논의하고 있어, 미사가 정상적으로 거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추가 방역책이 도입되면 일반 신자 없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사은찬미가(테 데움)를 바치는 송년 미사(12월 31일)와 신년 미사(1월 1일),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1월 6일) 등도 마찬가지로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인 25일 정오에 예정된 교황의 강복 메시지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와 온 세계에’ 라는 뜻의 라틴어)는 성베드로대성당 2층 중앙에 있는 ‘강복의 발코니’ 가아닌 대성당 내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옛날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연극을 준비하며 뛰어다니던 참으로 행복한 추억들을 회상하며 동심을 돌아가게 됨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어린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homeless-people이 노숙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상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성탄의 은총을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계 가정의 명절인 성탄절에 우리가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의 가정에 평화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축복의 가정이 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의 평화의 왕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될 때에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의 가정 한 가운데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될 때에,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되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과 권력이 아무



리 많이 있어도 평화가 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탄생될 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2. 어린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Christ(그리스도) + mass(천주교의 미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점성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는 예물을 들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카스파라는 동방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소유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벨라이어라는 동방박사는 사상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발타진이라는 박사는 몰약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성탄, 예배하는 성탄이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3.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

성탄절은 홀로 지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더 붙어 함께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홀로 지낼 수 없는 성탄절에 너그러운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탄절에 선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성탄에 평화의 왕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선도 목사-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